

마음이란 어디서 온 것인가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란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 내 마음은 나라의 존재가 탄생하는 동시에 생긴다. 아니, 유전법칙에 따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육체가 조성되기 시작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피가 돌고 뇌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은 DNA를 통해 유전되므로 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마음에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조상의 핏줄을 따라 올라가면 맨 처음 조상이 나온다. 마음은 그 첫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첫 조상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또한 생긴다. 첫 조상이 생기기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첫 조상에게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첫 조상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첫 조상 이전에 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거나 선가(禪家)에서 내려오는 화두(火頭),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승리자 조희성 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끝 간 데 없는 기쁨과 희열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었다. 이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존재했으므로 영이며, 중성의 빛이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자 동시에 생명체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미귀가 하나님을 사로잡는 순간 사람으로 변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동식물과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승리자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본래모습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음양으로 변한 우주만물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일체중생살일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시편 82:6)이라고 하는 성경과 불경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마음은 핏속에 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피 한 방울로부터 시작했다. 정자와 난자 또한 피의 변형체다. 피는 육안으로 보이는 빨간 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호르몬, 효소, 림프액 등 모든 것이 피



에 속한다. 그 한 방울의 피에는 조상들의 유전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 유전정보가 뇌를 통하여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뇌세포에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세포는 마치 회로와 같은 것이며, 뇌세포를 통하여 피가 흐를 때에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핏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미국의 레슬리 다쿠치 박사는 "기억은 뇌에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퍼져 있는, 내장으로 뻗은 신경 경로와 더불어 우리의 피부에까지 퍼져 있는 연결망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폴 피어설 박사는 150명 정도의 장기이식 수술 환자를 면담했는데, 살아 있는 조직의 세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 외쪽에서 인용)고 말했다. 장기가 조직의 세포 또한 피의 변형이므로 핏속에 기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들의 생각을 비롯하여 행한 것들이 핏속에 녹음이 된다고 말하는 조희성 님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이처럼 핏속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기억은 마음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마음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피와 연관시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성격이 꼼꼼하고, B형인 사람은 사교적이며 유순하고, O형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며, AB형의 사람은 번덕이 심한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피의 형태에 따라 각기 마음작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피의 작용이 곧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핏주머니인 심장에 마음 심(心)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일컬었

던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ABO식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것을 분류하여 놓은 것일 뿐이지만 대개 이러한 분류가 얼추 맞는 것을 보면 피가 마음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관상으로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우같이 생긴 사람은 여우처럼 행동을 하고, 족제비같이 생긴 사람은 족제비 같은 행동을 한다. 약하게 생긴 사람은 약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착하다. 이 뿐만 아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얼굴은 난폭한 형상이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갖게 된다. 마음에 의해 피가 변해서 그렇게 얼굴이 변한 것이다. 우리말에 "생긴 대로 노네."하는 말도 피의 변화가 생긴새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 주는 흔한 말임을 알 수 있다.

부부가 닮는 이유

부부가 수십 년 같이 살다보면 서로 닮는 경우가 많이 본다. 얼굴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는 짓도 닮게 된다. 이것 또한 피의 변화로 인해 생김새가 변하는 근거이다. 여담으로 재밌는 사실이 있다. 자녀가 남편을 닮거나 부인을 닮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다. 부인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할 경우에는 태어난 자식이 남편을 닮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

인을 닮게 된다.
말속에 들어 있는 심혈형신론(心血靈身論)
우리 말 속에 마음의 변화에 따른 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있다. 간이 콩만해졌다. 대담(大膽)하다. 비위(脾胃)가 상했다.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었다. 이러 표현들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서 장기나 기관이 변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심신의학

심신의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들에게도조차 생소한 학문이며, 설령 심신의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도 이 분야를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학문이다. 하지만 저 유명한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깊이 연구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니 심신의학의 활야버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심신의학은 프로이트, 아들러 등에 의해 그 기본개념은 이해되었지만 심신의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프란츠 알렉산더이다. 그러다가 존 사노 박사에게 와서 심신의학이 중요한 질병치유 사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신의학에 따르면 많은 병들이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해로운 감정현상의 무의식적인 방어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무의식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병이 낫거나 좋아진다.

이밖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도 마음과 피의 변화에 따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피와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마음이 변하면 피가 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영생의 피로 변하고, 반대로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는 피로 변한다는 승리자 조희성 님의 가르침은 과학적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학설이다.*

6월은 보광의 달입니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십시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7>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

신이라는 것이 영이요,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피 자체가 마음이요, 피 자체가 영이요, 신이다.
그 피로써 살이 만들어지고 몸이 조성 되었으므로 사람의 몸이 영이요, 신이요, 영혼이다. 또 사람 몸만 신이 아니라 만

물이 다 신이라는 것을 매시간마다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세밀히 말씀드리고 있다.
만물이 다신은 신인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고 죽어있는 것은 사망의 신이다. 만물 속에 빛과 어둠의 신, 생명과 사망의 신이 병존하고 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8> “우주를 움직이는 자”

만물이 신이라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신이다. 어떤 천문학자가 우주 속에는 지구에서 보이는 은하수와 같은 것이 17개나 있다고 깨나 아는 척하고 발표 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사실은 우주 속에는 셀 수 없는 무량대수의 은하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하나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달이라는 별은

지구를 돌고 지구라는 별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지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돌아가고 있으므로 영원무궁토록 서로 부딪침이 없는 것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긴자가 되어 한국 땅에 서 있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뇌하수체

뒷머리와 뒷목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질하십니까? 이는 뇌하수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뇌하수체는 간뇌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으며, 연부총색을 띤 완두콩만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 작용은 내분비선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모든 내분비선을 조절합니다.
뇌하수체는 전엽 · 중엽 · 후엽으로 나뉘어 저마다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가 어린의 모습을 갖게 되는 증상입니다.
⑤ 쿠싱 증후군: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자극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생기는 질환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보름달처럼 둥글게 살찐 얼굴과 가는 팔, 다리입니다. 또 핏속에 당 성분이 많아져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거인이 되고, 너무 적게 나오면 난쟁이가 됩니다. 또한 전엽에서는 다른 내분비선(갑상선 · 부신 피질 · 생식선)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⑥ 기타 팽팽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팽을 많이 흘립니다. 손목의 연골 조직이 과성장하여 수근터널 증후군이라는 손목이 아픈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뼈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시야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만 갑상선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나, 또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난소를 자극해야만 여포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체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황체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의 원인은 뇌의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양, 물혹,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인의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원인은 뇌하수체 종양입니다. 이는 전체 원인의 70-80%를 차지하며, 종양 자체에 의해 발생하거나 종양을 치료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분만 시 과다 출혈로 인해 쇼크에 빠질 경우 뇌하수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막염, 뇌염, 유행성 출혈열 등 매우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뇌하수체 기능 부전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결핍증의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원래의 질환과 많이 연관됩니다.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아주 빠른 시기에 모든 호르몬이 결핍됩니다. 뇌 방사선 조사로 인해 2차적으로 호르몬 결핍이 생긴 경우에는 이보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길게는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내분비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출산과 상관없이 유즙이 분비되는 것도 뇌하수체 기능 항진의 증상입니다. 이를 비롯한 뇌하수체 기능 항진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인증: 뇌하수체에서 과도하게 성장호르몬이 분비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사춘기 이전에 생깁니다.

한편 손상된 뇌하수체 및 시상하부는 원인이 제거되더라도 호르몬 분비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평생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면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말단 비대증: 성인이 된 후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손끝, 발끝 등 신체의 말단 부위가 커지고 두꺼워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납니다.
③ 유루증: 뇌하수체에서 유즙분비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출산 후가 아닌 데도 젖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 외에 무월경, 불임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 저하나 발기부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④ 성조숙증: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어린이이

김주호 기자

정도령 아면 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음식과 수행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레몬의 강한 산 우유를 응고시켜 소화불량 일으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에는 주요 성분인 칼슘을 비롯하여 양질의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게 될 경우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해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형성을 저지하는 데도 관여를 해 여러 성인병과 심혈관계 질환 등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다보니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든든해져서 아침 식사대용으로 마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우유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지금부터 우유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레몬과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

다양한 과일과도 궁합이 대체적으로 좋지만 우유와 과일을 함께 즐길 때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산 성분이 많은 과일의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우유는 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자체적으로 산이 나와서 약간의 응고되는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강한 산 성분이 들어가면 더욱더 우유를 응고시키게 되어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초콜릿

우유와 초콜릿은 좋은 궁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같이 섭취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궁합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둘 음식에 포함된 지방이 합쳐져 체지방 축적을 발생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게 된다. 물론 단기간의 섭취는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인한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각종 대사질환과 성인병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같이 먹는 분들은 피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피해야 한다.

셋째, 설탕

초콜릿과 함께 조심해야 할 음식이 바로 설탕인데 우유 자체에 단맛을 가미하기 위해 설탕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유에 풍부한 비타민B1 성분의 온전한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것과 함께 조

심해야 할 음식이 소금이다. 우유에는 이미 적당한 양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섭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소금을 넣게 되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성인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넷째, 시금치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은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형성하여 이로 인해 결석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부나 멸치와 같은 칼슘 성분이 강한 음식과는 궁합이 맞지 않다고 언급했듯이 우유도 칼슘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시금치와도 궁합이 맞지 않다.

그러면 우유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간단히 소개하자면 딸기를 비롯하여 바나나, 옥수수, 감자, 토마토, 귀리 등의 음식들이 있겠다.*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8회>

대통령 당선 전언을 듣고 감격해 연신 감사를 표하다

용포 1점 접수함

1997, 12, 17

이희호

김대중 대통령 당선 전날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는 용포를 받고 써준 친필사진
https://victor.or.kr/이희호-여사와-승리제단의-인연1997년-대선-당시-에피소드/

11절: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벗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벗으시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지난호에 이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옥중면회 온 사람들한테 "내가 이 철창을 부숴버리고 날아서 역국 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옥중살이를 7년 동안 할 때 교도소 옥문을 부수고 날아서 역국까지 날아오려고 마음을 몇 번이고 먹었다가 취소하셨는데, 그 까닭은 모방에 능한 마귀가 똑같이 날아오면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현혹시켜 거짓 선지자로 행세하며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 임이 환히 내다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옥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 다. 분명히 바깥에서 옥문을 잠갔는데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거 잠갔는데 왜 열렸을까? 당신, 열었소?"
"아니요, 난 아닌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철문을 잠그려면 자물통으로 다 잠그는 것입니다. 자물통을 한 군데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위아래로 잠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물통이 다 풀려져 있으니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아니, 대통령선거가 내일인데 아직 선거도 안했는데 대통령 당선을 경축 드린다니?"

1997년 1월에 제단 간부들이 옥중에 계

신 주님을 면회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은 김대중이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옥중면회에 갔던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 1순위로 보고 있고 역술가들도 이번 대통령은 이 후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劉圃)의 몸으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승리제단의 김상욱 회장, 안병천 비서실장, 이근숙 편집국장, 안명숙 전도부장 등 제단간부들은 대통령선거 하루 전 날이 되는 1997년 12월 17일 새벽 4시경에 역곡에서 출발하여 일산의 김대중 후보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갈 때에 황금빛 비단 위에 쫓겨다니는 용 한 마리를 황금으로 수를 놓고 그리고 그 용포에 '김대중 대통령님 당선을 경축드립니다'라고 수를 놓은 것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거실에는 김대중 후보를 따르는 동교동계 인사들 20여 명이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욱 회장 일행이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이희호 여사가 나와서 반가이 맞아주는 것입니다. 용포를 내어 보여주니 "이유, 용은 마귀라고 하는데!" 하며 감리교 신자이기에 그런지 질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 동양에서는 용은 제일 높고 귀한 분을 상징합니다. 용상, 용안이라는 말을 들으셨지요?" 하고 설명하였더니 그제야 고맙다고 하면서 용포를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포를 보더니 "아니, 대통령선거가 내일인데 아직 선거도 안 했는데 대통령 당선을 경축드린다니?"라고 정색하면서 의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희성 총재님께서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이 한국에 내신 정도령님이신데 이 백성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탄압과 핍박을 가하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김00###이 정도령님 탄압의 핵심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오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더니, 이희호 여사는 좀 황당해하면서도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는 말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지에다 "용포 1점 접수함. 1997.12.17. 이희호"라고 친필로 작성하고는 건네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욱 회장이 대답하기를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옥중에 계신 조희성님을 찾아보아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힘들 텐데"하고 난처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회장은 "무엇이 힘들니까? 마음만 잡으시면 왜 안 되겠어요.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신 것을 확인이 되시면 정도령님을 인정하시어 꼭 만나 뵙고 싶어 지실 것입니다."라고 재차 말을 하니 이희호 여사께서는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2층에서 김대중 후보가 계단으로 내려오자 중진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상욱 회장은 김대중 후보에게 인사를 했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농지를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한 상태에서 김상욱 회장은 "조희성 총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옥중에 계시면서 금년 1월부터 이번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내일이지만 이미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가서 당선을 경축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니, 김대중 후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꼭 인사를 드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악수한 손을 놓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연락도 되지 않고 당선되면 정도령님과 옥중면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공허한 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첫해에 있었던 3.1절 특사명단에도 조희성 총재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신으로 지켜주심

이와 관련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분신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분신이 따라다닐 때에 여러분들이 안방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그 옆에 가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신이 여러분들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이 되면 그냥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제단을 오는 것도 이 사람의 분신이 깨워주고 이 사람의 분신이 '가자, 가자' 하고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단이 이 사람이 제단을 비우고 7년 징역 받았다가 7년간 비워놓은 게 아니고 구속되기 전 피해당인 것이 2년간이 넘었죠. 합해서 몇 년이요? 9년이죠. 그래서 머물러도 또 1년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을 비워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제단을 비워냈을 때에 분신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제단에 안 오셨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단상에서 있는 것이 안보이니가 그냥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없으니가 찬송 소리도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소리로 찬송을 하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의 분신이 그걸 내려다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꾸준히 나온 사람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아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4>

석가모니는 왜 음력 4월 초파일에 죽는다고 했다가 스스로 번복했을까? -2

[예] 대반열반경 제 23권 광명변조구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의 5

世尊若使滅度非涅槃者 何故如來自期三月當般涅槃
세존야사멸도비열반자 하고여래자기삼월당반열반
世尊若滅度是涅槃者 如來往昔初在道場菩提樹下
세존야사이시열반자 온하방위구사시성계역사등
說言後夜當般涅槃 如來誠實云何發是虛妄之言
설언후야당반열반 여래성실은하발시허망자언

세존이시여, 만약 멸도(滅度)라는 것이 열반(涅槃)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여러개에서 석달 뒤에 스스로 열반에 든다고 하였으며, 세존께서 만약에 번뇌를 끊는 것이 열반이라면, 여러개에서 처음 도랑에 게실 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번뇌를 끊으신 때가 곧 열반이라고 했사온데, 어찌해서

앞으로 석달 뒤에 열반에 드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그때가 열반이라고 한다면, 어찌해서 쿠시나 성에서 여러 힘쓰는 사람들에게 "새벽에 열반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래는 거짓이 없고 참되건만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되고 망령(虛妄) 된 말씀을 하십니까?

해설 : 이 글의 뜻은 석존이 지난날까지 열반이 멸도라고 하고 멸도는 곧 죽는 것으로 아함부의 경전에서 죽 이야기하고 심지어 범화경에서는 또 멸도는 곧 열반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제 입적하기에 앞서 그제자인 구귀덕왕보살로부터 번뇌를 끊는 것이 열반이라면 예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번뇌를 끊어 불도를 이루어었다면 왜 열반을 또 해야 하느냐고 힐난을 받는 장면입니다.

- 참고로 석가모니는 기원전 544년 2월 28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현대적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3월 하순 정도 된다.고대 인도는 태음력을 사용했으며 기원전 시대라 정확한 날짜를 산정 불가) 그 당시 석가모니는 미륵이 3월 하순경에 성불하는 것으로 선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벽이 3000년을 가로막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마귀들에 왜곡되고 있었다. 그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제는 한국에서 1980년 3월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자.
그리하여 마침내 80년 2월 초에 "이긴자가 되었다." 하여 해와 주님께서 웃도 맞추어 주시고 신발도 사 주시면서 전도를 나가라고 하였다. 그 후 이 사람은 걸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며 멀리 포리까지 매일 전도를 다녔다.(중략) 하루는 은행리에 있는 은광 장로교회의 주임장로인 유장로를 전도하였다.(중략) 그 은광 장로 교회에서 개관 기념집회를 마치고 밀실에 들어서자마자 해와 주님께서 "조사장 저 마귀새끼가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졌다."고 청천벽력 같은 고함을 치시는 것이었다. 말씀을 들으니 하늘이 노래지고 온 전신에 맥이 풀리며 몸이 천길만 길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좋아하는 것이 죄라면 누가 이 길을 갈 수 없을까?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으니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너무 괴롭혀드려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몸뚱이를 물렸는데 이제 또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서 떨어졌으니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니 그동안 살아온 가시밭 인생길이 생각나면서 슬픔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었다.(중략)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3월 하순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도하러 가지도 못하고 나를 짓기기는 연단을 가일층 계속하였다.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14>
하나님도 울고 미륵보살도 울었다.-3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3월 하순경이었는데, 죽을 결심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데, 마침내 이 사람 속소앞에 있는 큰 아카시아 나무에 목매달 끈을 찾고 있는데 (가장에 계시는) 영모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성급하게 왜 그러는 거야?" 하시며 이 사람 두 손을 붙들고 우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같이 흐느껴 울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군요, 이 몸과 생명 전체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으니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데 죽으려고 했으니 내가 또 죽음을 지었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울다가 죽을 마음을 고쳐서 참고 견디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영모님은 온데간데없으시고 방안에 이 사람

혼자 있는 것이었다.
영모님이 문을 열고 나가셨나 하고 문을 보니 문고리는 그냥 걸린 채로 있었다. [부산 기장에 하나님의 분신과 함께 계시던 영모님이 미륵보살이 죽으면 하나님도 필요 온 인류도 필요로 다급한 마음에 날아와 미륵보살(이긴자)의 마음을 돌려놓고 사라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죽으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를 갈아붙이고 연단을 시작했다.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3월 하순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도하러 가지도 못하고 나를 짓기기는 연단을 가일층 계속하였다.
위의 글을 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다음호에 계속)* 명종

영생하는 주체 영은 하나님, 인간은 영생 못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로 오셨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회복 되어야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인간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그런고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회복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으로 회복 되어야 영생이지 인간 자체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인간 자체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고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자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6000년이 걸린 거야. 또 하나 만드는데 6000년이 앞으로 또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립시다) 안 걸려? 또 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인간으로서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 얻는다는 그 헛된 꿈은 버려라, 이 소리야. 아시겠어요? 구원을 못 얻고 기왕 죽을 바에는 이제 그대로 빨리 나라는 건 죽어야 돼, 살려야 돼? 나라는 건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면 바로 구원을 얻은, 영생체로 화해된 완성의 인간자가 인간 속에 들어가야 그 인간이 구원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자체로는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만든 거예요.

인간자 구세주 하나님이 죄인 속에 들어가야 영생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는 바로 뭐냐면 이제 그대로 완성의 구세주 인간자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죄인 속에 하나, 하나 분신으로 들어가야 그 인간이 바로 완성의 인간자 때문에 텅달아서 구원을 얻는 거지 자체로는 구원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그랬어, 쉽다고 그랬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완성한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려고 분신으로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 없어? 내가 구원이야, 하나님이 구원이야? 하나님이 구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오늘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뭐 선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된다면 이 세상 벌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거야. 안 이루어졌을 거야? 이루어졌을 거야? 지금 사람처럼 옛날 사람은 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선했어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주죠?

나라는 주체영이 죄

그런고로 마음이 비어있어야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의 영이 그 빈 집에 들어가 지 뭐가 마음에 꽉 차게 들어있으면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주체영이 하나님



구세주 조희성님

이지 사람의 영은 이제 영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주체영이 죄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나라의 주체영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이비 종교야, 진짜 종교야? 그게 사이비 종교야. 아시겠어요?

구세주가 믿음이고, 완성의 인간자 하나님 구세주가 믿음이고로 믿음 자체가

구원이지만 이제 그대로 믿음 아닌 존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고로 그런고로 내 마음을 하루 빨리 비워놓기 위해서는 시간 시간이 내 생각을 지우고 내 생각을 버리는 투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생각을 버리는 투쟁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방법

이 사람이 옛날에 내 생각을 버리는 투쟁을 할 때 어떤 투쟁을 했냐면 바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으로 좋아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생활

을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을 마귀새끼라고 두들겨 패는 사람한테 감사했다고 그랬어,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왜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이제 그대로 나를 완전히 두들겨 패면 나버지 자존심 마귀가 일어나서 화를 낼까, 안 낼까? 화를 내죠?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존심 나버지 마귀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것이 도 닦는 거야. 도 닦는 방법. 이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구세주요, 구세주가 바로 믿음이고로 바로 구세주 안에 종교가 있고 종교 안에 구세주가 있는고로 그런고로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다는 말은 바로 구세주가 없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왔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선이 나왔다는 것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구세주를 만나고도 여전히 자기 자랑이나 일삼고 이제 그대로 자기를 탐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예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이제 그대로 구세주가 나왔으면 나를 버려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온데간데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구세주 하나님이 분신의 능력이 있다고 옛날 영모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분신의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세 번째 사람에게 분신의 능력을 준다고 그랬죠? 분신의 능력을 준다는 건 바로 분신할 수 있

는 게 구세주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도 안 되고 두 번째 사람도 안 돼. 세 번째 사람이라야 자신의 능력을 갖는 거야. 분신의 능력은 세계 인류가 56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56억의 몸으로 쪼개서 나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분신의 능력이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없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사람한테 잘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 잘 보려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바로 원칙이야. 원리. 구원의 원리야. 구세주한테 잘 보여야 구세주의 분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미운 사람한테 들어갈까? 안 들어가. 어렵도 없어. 구세주한테 잘못 보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세주한테 잘 보여야 이제 그대로 구세주가 즉 자존심이 조금 남았어도 그걸 제거하고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대로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요, 믿음을 가졌다가 되는 것이요,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구세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주는 거죠?*

1992년 8월 1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국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야곱의 하나님》 (10) 이방 신상과 의복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식들과 합세하여 세겔의 남자들을 죽이고 사로잡은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노략질한 재물과 가축도 레아에 속한 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겔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도륙당하여 세겔 성읍이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참담한 소문이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까지 퍼져,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손자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고 또 이 손자들이 오라버니 라반의 딸의 자식이었기에 더욱더 상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브가는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지 보름 만에 리브가는 자신의 유모 드보라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 야곱을 지척에 두고 얼굴도 못보고 죽게 되니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나 대신 유모라도 야곱을 찾아보고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어려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유모가 힘닿는 데까지 나

대신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133세의 나이에 임종하였습니다.

(10) 이방 신상과 의복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워있는 막벨라 굴에 잠사지내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리브가를 안치시킨 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헤브론을 떠나 세겔에 가서 야곱에게 모친의 임종을 전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복수를 전해 듣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 리브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아의 자식들은 노예로 삼은 세겔 사람의 처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자식들은 세겔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을 돌이켰습

니다. 그들은 세겔 성읍의 딸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23세의 르우벤은 세겔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할 때에 강간하였던 처녀를 찾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22세의 시므온과 21세의 레위는 세겔 성읍의 남자들을 칼로 잔악하게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세겔 성읍의 여자들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16세의 스불론은 세겔 성읍의 딸 중에 하나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레아가 낳은 20살의 유다는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세겔 성읍의 남자들을 도륙할 때에 강간한 처녀가 있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에게 강간당한 처녀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다섯 명의 아들 중에 유다만이 세겔 성읍의 딸 중 하나를 아내로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방 신상과 의복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런 연후에 내가 네 형에서 피하여 도피하던 중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있던 나 여호와를 보았던 곳으로 가서, 거기

서 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에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시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과 종들에게 전하자, 모두 자진하여 신상과 귀고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라헬도 흠뻑은 아버 리반의 신상과 드라빔을 내놓았습니다.



“디나를 취하는 세겔(창34:2), 세겔의 여자를 취하는 레아의 자식들(창34:29), Rape of Dinah: Giuliano Bugiardini (1475-1554). <https://gallerix.org/album/KHM/pic/glxr-1144506765>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내놓자 비로소 베엘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세겔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고 베엘로 향했습니다. 베엘에 도착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잠사되었습니다.

야곱이 베엘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헤브론으로 향하던 도중 그의 아내 라헬이 난산하여 아들 베나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을 예브랏으로 가는 길에 잠사지내고 그녀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네모반듯한 돌제단을 차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
라헬이 아기를 낳노라고 신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When her labor was at its worst, the midwife said to her, “Don't be afraid. This one will also be a son for you.”

라헬의 뱃속에서 요셉과 베나민이 나왔는데, 라헬의 두 아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야곱의 분처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에 하나님 신이 요셉에게 옮겨진 것으로 보고 그를 없애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이기는 삶

진정한 강자(强者)



세상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전쟁터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먹이사슬의 이치다. 그러나 반드시 힘이 세다고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이 최상위의 포식자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 힘은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지위에 나온다. 돈이 힘이고 지위가 힘이다.

금권선거가 판치던 시절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권력을 가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벌이 있고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온갖 힘을 쓰는가 보다.

성공의 끈 중에도 학연과 지연의 끈이 튼튼한 사람이 출세할 확률이 높다.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그래서 서울대가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나 카이스트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승진도 빠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은 학연과 지연이 있어야 출세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좋은 학벌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가 넘쳐난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하여 항상 우수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 막상 현실 세계에서 더뎠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매사가 독선적이고 자신만 옳다. 모든 사고의 기준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보할 줄 모른다.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미찰을 빚게 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또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겸손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잘나기던 국회의원도 인성이 무너지는 순간 정치생명은 끝이다. 민심이 떠나버린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해야 한다. 자신이 절해서 국민이 밀어준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밀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영화의 대사는 정말 현실 세계의 생리를 대변하고 있다. 살아남는 자가 되려면 결국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겸손에 대한 뜻을 물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임금은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거슬러 임금은 폭군이나 아첨꾼에 휘둘리는 무능한 임금으로 전락(轉落)되어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된다. 진정한 강자가 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천당이 죄인에게는 지옥"

그날에는 하나님이 된 의인들은 빛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될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빛으로 화한 의인의 몸에서 발산하는 빛이 너무 너무 뜨거우므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방의 신이 다 멀어져 없어진 고로 의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무궁토록 뜨거워서 팔팔 뛰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자세~

효능: 등이 앞으로 굽은 사람에게 특히 좋은 자세.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몸 안에서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도와준다.

동작①: 등 대고 누워서 양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양 손은 엄지를 안으로 넣

어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에 놓는다.

동작②: 숨을 마시고 내쉬며 양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어 가슴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의 정수리를 바닥을 대려고 노력한다. 척추 뼈가 하나하나 퍼지는 느낌으로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폐 기능 향상에 좋은 코브라 자세~

효능: 복근과 앞 목이 썩 퍼지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자세이므로 폐기능 향상에 탁월하다.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항상 뒷목이 빠근한 사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동작③: 빠르게 앞다리 자세로 다리를 쭉 펴서 모으고 팔을 굽혀 손바닥을 가슴 옆에 둔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5-10회 반복한다.

동작④: 숨을 마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들어 상체를 밀어내듯이 서서히 올린다. 시선을 뒤쪽 발뒤꿈치를 바라보듯이, 갈비뼈와 복부를 열고 숨을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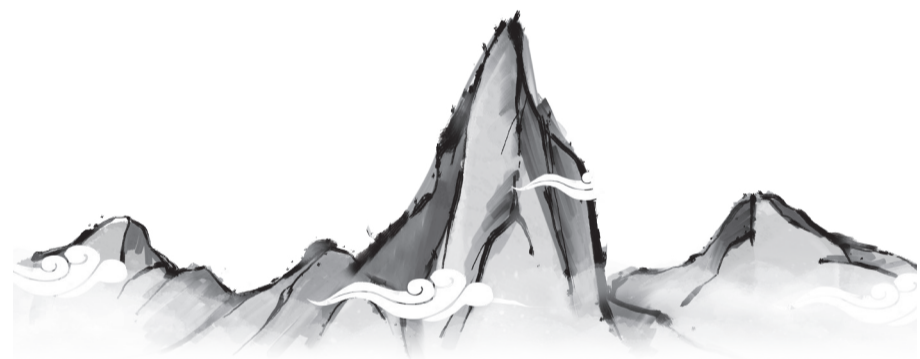
5~10초간 참는다. 숨을 내쉬면서 팔로 바닥을 미는 힘보다 배를 바닥에 붙이려는 힘이 강하도록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배 가슴 턱 순으로 돌아온다.*



큰 내를 전념이 이로우니 목도(木道)가 이에 행함이라 (利涉大川木道乃行이십대천목도내행)

松家田(송가전)

龍馬河圖先天儒 롱마하도선천유와
金龜洛書後天佛 금구낙서후천불이
神仙世界 신선세계 도라오니
相克陰陽猜忌嫉妬 상극음양시기질투
天鷲鷲천계성에 除去 제거하고
相生之理無爲化 상생지리무위화로
奇事異蹟出現 기사이적출현하니
日光東方光明世 일광동방광명세라
발가온다 발가온다
鸞龍無時未久開東 계룡무시미구개동
仙運日月掬提 선운일월취촉하니
權花江山 근화강산 발가온다
비쳐오네 비쳐오네
昏聩長夜朝鮮 혼구장야조선땅에
人增壽인증수와 福滿家 복만가로
仙國瑞光선국서광비쳐온다
萬邦父母權花江山 만방부모근화강산
擇名택명조타 無窮者무궁자라



화 강산 택명(擇名)도 좋구나. 이름 그대로 영원무궁토록 살 자라.

可憐가련하다 百姓백성들아
八鄭七李蜂起時팔정칠이봉기시에
豫曰皆聖出名將 예일개성출명장에
誰知鳥之雌雄수지오자자용으로
千鷄之中有一鳳천계지중유일봉에
어느聖성이 眞聖진성인고
眞聖一人 진성일인알라거든
牛聾人中 우성인중
陷地死地嘲笑함자사지조소중의
是非사비만흔 眞人진인일세

가련하다 백성들아 팔정칠이(八鄭七李) 즉 가짜 정도령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때 모두 내가 예언서에서 말하는 성인이요 명장이라 하나 지혜 있는 자 누가 있어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겠는가? 천 마리의 닭 가운데 오직 한 마리의 봉황(신선=정도령)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짜 성인(정도령)인고? 진짜 성인 한 분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가소. 그 분은 비웃음, 음해, 핍박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사지(死地=감옥)로 끌려갔던 분으로 옳다 그르다 사비가 많은 진인일세.

三人一雙弓十勝삼인일쌍쌍궁십승

人口有土 인구유토안갓서라
鷄籠白石勝武器 계룡백석승무기로
山海魔鬼隱藏산마귀은장일세
一心修道眞正者 일심수도진정자는
海印仙藥 해인선약바더살소
無所不能海印化무소불능해인화로
利出山渡海變天地이출도해변천지를
先後中 天海印仙法선후중천해인선법
長男長女장남장녀 마른 故고로
震巽兩木末聖聖진손안망말세성이
風雷益卦鸞龍 풍뢰익괘계룡
利涉大川木道乃行이십대천목도내행
天道仙法出現 천도선법출현하니
女上男下地天奏 여성남하지천태
兩白三農夫兩白삼농부

삼인일쌍(三人一雙) 즉 몸과 마음을 닦아 무극대도를 완성하라 궁궁 심승 하나님 좌정(坐定) 하겠느니라. 인구유토(人口有土)는 앓을 좌(坐)의 파

자. 정도령이 백석(白石=素砂)에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감로해인을 임의 용사하니 마귀가 산으로 바다로 도망가서 숨어 버리네. 일심으로 뜻과 정성을 모아 삼승의 도를 닦는 참되고 올바른 자는 해인 선약을 받아서 영생하소 능히 하지 못할 바 없는 해인의 무궁조화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너게 하며 천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느니라. 선후천이 가고 중천이 오면 해인선법을 잠낭장녀가 맡은 고로 진손안망이 말세의 성인인데 풍뢰익괘(風雷益卦)의 계룡(=손진)이나. 양목(兩木)은 청림도사(靑林道師)이며 '풍(風)은 손과=장녀=계, 뇌(雷)는 진과=장남=통'이다. 이로웁은 천지개벽이란 큰 내를 건너 감에 있으니 목도가 행함이라. 천도선법이 출현하여 여성남하 지천태의 양백산 풍을 전하느니라. 목도는 진손양목 즉 청림도사의 불사영생의 도를 말하며 감로해인의 무궁조화로서 천지개벽을 넘어간다. (구원선)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간 자에게 할 말이 있지 건너가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여성남하 지천태는 중천의 선운(仙運)을 64괘중의 하나인 지천태로 설명한 것이다. 태(泰)란 태평, 안태, 흥통하다는 뜻이니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생명샘

수소경제

옛날에 물로 가는 자동차가 발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만일 이걸 발명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천문학적 인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개발하려고 매달리고 있다. 지천으로 널리 것이 물이므로 그냥 공짜로 퍼다아서 연료로 쓰면 되니 환상적인 일이다.

물로 가는 차 개발했다?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물을 한번만 공급하면 500km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예전에 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보포스트(SCMP)가 2019.5.27일 보도한 내용인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 허난성 난양시에 위치한 청년차(靑年車)라는 기업에서 물을 한번만 공급하면 500km를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고, 주행실험에도 성공했다고 하니 가히 놀랄 만한 뉴스였다. 확인해 보니 물에 알루미늄 합성물을 첨가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소와 물을 다시 결합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동력으로 가는 자동차라는 것이다. 이론은 그럴듯하나 물에 첨가하는 알루미늄은 휘발유에 맞먹는 가격이므로 경제성이 없어 실용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적 재앙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Neutral)을 이루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의 75%가 수소

탄소중립 대책으로 대두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이다. 수소경제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연료 대신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를 말한다. 수소는 우주에 75%가 있는 흔한 원소인데다가 석유나 LNG를 정제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여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가 개발되어 현재 시판중이다. 수소차는 진정한 의미에서 물로 가는 차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만일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석탄 석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